

■ 권중달교수의 역사칼럼<12>

# 행어불발(幸於不發)

발각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최근 몇 년 간 우리 사회는 갑주어졌던 일들이 드러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다. 몇 년 전에는 박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하여 최서원의 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녀가 다닌 중등학교가 졸업조건이 아닌데 졸업시켰다고 하여 졸업이 취소되었다. 그러하니 이를 기초로 들어간 대학의 입학도 취소되어 별안간 학력이 종결이 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또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이 위조된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에 제1차로 올려서 대학에 들어갔다고 떠들썩하다. 결국 그 논문은 학회에서 취소되었고, 이것 때문에 대학의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 같다. 민약에 대학입학이 취소된다면 이미 들어가 있는 대학원의 입학도 취소가 되는 것 같다.

이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부모 때문에 젊은이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싶기도 하였다. 민약에 이들의 부모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은 묻혀서 넘어갈 일들일 수도 있었는데, 부모가 권력에 가까이 가는 바람에 애꿎게 자녀가 벌을 받는 셈이 되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밝혀지면 곤란한 일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듯하다. 북송 시절에도 오늘날의 앞에선 두 사건과 같은 일은 아니지만 관리들 입장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가 발려 졌다. 궁중을 드나드는 관리들이 점쟁이 집을 드나들었는데, 관리들에게 점을 쳐 준 그 점쟁이인 일자(日者)가 궁중에 있었던 일을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올렸다.

허간(許堅)이 편지를 보게 된 황제 인종(仁宗)은 몹시 화가 났다. 궁중에서 벌어진 일이야 비밀에 붙여야 하고, 민간인들이 알아서 안 되는 것인데, 점쟁이가 알았으니 궁중의 비밀을 아는 궁중을 드나드는 관리 가운데 누군가가 점쟁이에게 이야기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 생각이 들자 점쟁이 집을 적률(籍錄)하여서 어사(御史)에게 철저히 조사를 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점쟁이의 집에서는 당시 조정에 근무하는 인사들이 점쟁이에게 점을 치며 길흉(吉凶)을 물었던 편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황제는 점쟁이와 편지를 왕래한 관원 가운데 누군가가 궁중의 비밀을 말하였을 것이라고 하여 조사하라고 명령하였다. 자칫 큰 정치적인 회오리바람이 불 기세였다.

당시의 관리들도 자신들에게 닥칠 길흉화복에 대하여 궁금해서 점을 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 겉으로는 유가(儒家) 도덕을 내세우고 군자(君子)인 척 하였지만 자기 개인의 미래에 대하여는 점을 치는 나약함을 가졌던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그것을 표리부동(表裏不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나약한 일면이다.

이 사건이 계속 되어 파장이 더 커진다면 전체적으로 정사를 운영해야 하는 재상의 입장에서 온 조정이 이 일로 시끄러워질 것이고 그러면 당장 처리해야 할 정치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 생각한 당시의 재상인 왕단(王旦)은 인종을 만나서 말하였다. 중대하게 조정의 정사를 그르친 내용이 없으니 사건화하지 말자고 건의하였다. 그러면서 '저도 젊어서 점을 친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점을 쳤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이라면 저도 하옥시켜 주십시오.'라고 까지 말하였다.

그러자 인종은 '이미 드러난 사건인데 어찌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하였다. 이때에 왕단은 말하였다. '신이 재상이 되어서 나라의 법을 집행하면서 어찌 스스로 발견되지 않은 것을 요행(僥倖)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죄를 주겠습니까?' 이 말은 점쟁이의 집에서 내가 젊어서 점친 증거물이 안 나와서 밝혀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느냐는 말이었다.

왕단은 황제에게서 점집에서 압수한 조정 관원들의 편지를 다 달라고 한 뒤에 재상부에 가서 다 태워버렸다. 그 후에도 많은 관원들은 그 편지를 살살이 조사하여 점쟁이 집에 왕래한 사람을 다 조사하자고 하였지만 이미 증거를 없애 버렸으니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었고, 사건은 그것으로 끝났다. 점쟁이 하나 때문에 벌어질 정가의 회오리바람을 잠재운 것이다.

왕단은 이른스런 사람이었다. 왕단이

왜 이 점쟁이 집에 관리들이 드나들었던 것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정적을 때려잡을 좋은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 왕단이라고 정치적으로 미워한 사람이 왜 없었겠는가? 생각을 조금만 그러한 쪽으로 돌렸다면 얼마든지 자기에게 적대적 행위를 한 정적들을 모조리 몰아 낼 수 있을 터였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 경쟁자를 몰락시키는 것보다 그로부터 올 정치적 회오리바람이 미칠 좋지 않은 영향과 후과(後果)에 깊이 걱정했던 것 같다. 진정한 정치가였다. 그래서 명재상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조장관의 딸이 곤경에 처하게 된 첫 단추는 박근혜정부에서 편법을 저지른 최서원의 딸에게 입학 취소를 하여 서술 시편던 법의 심판을 내린데서 시작하는 것 같다. 당시만 해도 참으로 법대로 했으니 정기가 실행되었다고 기뻐했을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과는 다시 조국법무장관의 딸에게 적용되었다. 한번 적용한 법을 사람에게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없으니 또 다른 젊은이가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다. 이 후로도 얼마나 많은 또 다른 높은 분들의 자식과 가족이 곤경에 처하게 될까?

최서원의 딸에게 왕단 같은 어른 태도를 취하였다더라면 조장관의 딸에게도 어른스럽게 처리할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최서원 사건이 있을 당시에 왕단 같은 통 큰 정치가는 없었던 것 같다. 상대방이 무너지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뿐인 정략가들만 머리를 쥐어짖을 법하다. 그러나 이번엔 조장관의 딸의 경우에 똑 같은 논법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다.

최서원 사건 당시에 이 사건의 처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만이라도 어른스럽고 자신을 돌아보았다더라면 우리 사회는 이토록 두고두고 상대방의 치졸한 약점을 가지고 늘어지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터였다. 모르긴 몰라도 또 몇 년이 지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이 악순환은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제발 정략(政略)이 아닌 정치(政治)를 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요새처럼 정치는 실종되고 정략가들만이 판치는 시대에는 애꿎은 백성들만 고생하는 것은 아닐지?

# 안동능곡회 가족들 권근 삼대 묘소 참배 및 청남대 방문



권근 묘소에 고유제를 올린후 단체로 기념촬영을 했다.

안동능곡회(회장. 권오건) 회원 가족과 능우회원 등 40여명은 9월 21일 충북 음성군의 '권근 삼대 묘소'와 충북 청주시의 대통령별장인 '청남대'를 방문했다. 능곡회 주최로 해마다 개최하던 '능곡과 택음약회'를 취소하고 올해는 유적지 답사로 대신 한 것이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구름이 잔뜩 끼었다가 마침내 충북 음성군에 도착, 권근 묘소를 참배할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날 능곡회 유적지방문단은 오전 8시 40분 안동시청 앞에서 전세버스로 출발, 충북 음성군으로 가는 도중 버스안에서 권오건 능곡회장과 권중근 능우회장의 인사말이 있은후 권오건의 대중회 사무부총장은 "오는 11월 16일 시조묘소 추향제와 평창공. 학림공의 비제막식도 거행하니 많이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 달리는 버스안에선 1점당 5천~3만원짜리 상품을 추첨해서 누구나 다 가질수 있도록 배려했다.

오전 10시 권근 묘소 주차장에 버스가 도착하자 서울에서 내려온 권오문 추밀공파총회장을 비롯하여 권영환 고문, 권영준 부회장, 권오섭 사무국장 등 4명이 능곡회 유적지방문단을 반갑게 맞이한다. 때마침 비가 내리자 우산과 우의를 쓰고 권근 묘소로 이동했다. 깨끗하게 깎은 잔디와 규모가 큰 3대 묘소를 보자 마치 왕릉에 온 듯 착각할 정도다.

권근 묘소에 주과포(酒菓脯)를 준비, 고유제를 올린후 최현상 문화관광해설사의 권근 삼대 묘소에 관한 해설을 들었다. 방문단은 권근 묘소 앞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한 후 권근 등 삼대 신도비와 사당을 둘러보고 '단지한식비페'에서 점심을 먹었다.

충북 음성군 생곡면 능안로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도기념물 제32호인 '음성 권근 삼대 묘소 및 신도비'는 양촌 권근(權近)

과 그 아들 권제, 손자 권람의 묘가 위로부터 차례로 조성되어 있어 3대(代) 묘소라고 한다. 권근의 묘소는 본래 경기도 광주에 있었던 것을 세종 26년(1444)에 이곳으로 이장했다.

권근(1332~1409)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문신이며 학자이고 호는 양촌이다. 고려 공민왕 18년(1369)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조선 태종1년(1401)에 1등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김창부원군(吉昌府院君)에 봉해지고 의정부찬성사를 지냈다. 좌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종(文忠)이다.

권근의 둘째아들 권제(1387~1445)는 조선시대 문신이며 학자이고 호는 지재(止齋)이다. 세종 초에 집현전, 부제학, 대사헌, 한성부윤을 지냈고 경기도 관찰사, 이조판서, 우찬성이 되었으며 정인지 등과 함께 '음비어전가'를 지었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경이다.

권람(1416~1465)은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권근의 손자이며 권제의 둘째아들이다. 호는 소한당(所韓堂)이며 문종 즉위년(1450)에 문과에 급제하고 단종 1년(1453)에 1등 정난공신(靖難功臣)이 되었으며 세조 7년(1462)에 좌의정에 이르렀다.

방문단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에 위치하고 있는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인 대통령별장 '청남대'로 이동했다. 비가 쏟아져서 청남대 전체를 둘러볼 수 없었고 1시간 30분 가량의 시간이 주어져서 자유시간을 이용, 대통령기념관과 청남대 본관을 둘러보았다.

대통령기념관은 청와대 본관 건물 60% 축소된 모양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역대 대통령 기록화 등 수천점이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을 둘러본 방문단은 청남대 본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사진촬영이 금지된 곳으로 1층은 회의실, 접견실, 식당, 손님이 있고 2층은 대통령 전용공간으로 침실, 서재, 거실, 식당, 가족실, 한실 등이 있다.



청남대 본관 정문입구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청남대 본관은 1983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별장으로 이용되던 곳이었으나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이 소유권을 충북도에 이전한 뒤부터 대통령 별장으로서 기능은 사라지고 현재 민간에게 공개되어 관광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개방 이후 800여만명이 찾아왔다. 청남대의 주요 시설로는 본관을 중심으로 팔포장, 그늘집, 헬기장, 음악분수, 대통령광장, 양어장, 조각정, 초가정 등이 있고 6명의 대통령이 89회 472일 이용 또는 방문했다.

청남대를 방문한 능곡회 방문단은 버스를 타고 안동으로 내려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위해 권영호 회원을 사회자로 선정, 노래자랑을 했는데 많은 노래를 불렀다. 이어 권오건 능곡회장이 태일 1장, 권도희 회원이 구재봉 1통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으며 권오의 사무부총장은 닭발편육을 술 안주용으로 내놓았다. 방문단은 안동시 강남로에 있는 '흥기와 쭈꾸미'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 樞密公(추밀공)派祖, 忠憲公(충헌공) 歲享 안내

晩秋之節에 諸 회원님들의 康寧과 家內諸節이 均安하시기 기원합니다. 樞密公派祖와 忠憲公 己亥年 秋享祭禮를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公사다망하시더라도 追 遠報本의 마음으로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 시 : 2019년 10월 20일(세째주 일요일) 10시 30분  
※ 10월 20일 일요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177번지(단소)
- ▶ 집합장소 :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앞(세종문화회관 뒤)
- ▶ 버 스 : 성우항공 관광버스 2대에 분승 후 08:15분 정시 출발
- ▶ 개별참가 : 자가용 이용시 전진교 앞에 09:30까지 도착, 출입절차 승인
- ▶ 단체참가 : 종중은 추밀공파대중회로 10월 12일(토)까지 연락바랍니다.
- ▶ 출입경로 : 전진교 통과 후 우측 100m에서 좌측 단소로 진입
- ▶ 유의사항 : 모든 참석원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필수 소지
- ▶ 연 락 처 : 권경일 사무처장 010-3039-7282  
버스인솔자 권혁재 이사 010-9195-2179

安東權氏樞密公派大宗會 會長 권 五 敦

# 종중 정기총회 소집 공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안동권씨 예조참판공파, 장사랑공파, 지평공파, 승지공파, 어모장군공파, 감공파, 도사공파 종중의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시 : 2019년 11월 11일 오전 11:00 (음력 10월 15일)
-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242-5(삼태기 식당)  
(서리 34-1 묘역에서 시제 드린 후 이동)
- ♣ 안건 : 가. 회장 등 임원선출 및 정관 개정 등에 대한 주인의 건  
나. 종중원 명부 확인의 건  
다. 2019 결산 및 2020 예산 승인의 건  
라. 토지 매각에 관한 건  
마. 기타 안건

2019.10.1.

종중 연고항존자 권영옥